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제 1독서] 집회 3,2-6.12-14
[화답송] 시편 128(127),1-2.3.4-5(◎ 1)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여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제 2독서] 콜로 3,12-21
[복음 환호송] 콜로 3,15.16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복음] 마태 2,13-15.19-23

성가	8시 미사	입당 113	봉헌 105 210	성체 153 164	파견 114
	11시 미사	입당 113	봉헌 105 210	성체 153 164	파견 114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12월 29일)		송년미사(12월 31일)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1월 1일)	
	8시	교중미사	저녁 8시		오전 11시	
미사해설	김글라라(순희)	황테레사(혜정)	허세실리아(홍숙)		이마리크레센시아	
제 1 독서	이바오로(명국)	이레이몬드(창용)	최다니엘(대연)		정요한(석준)	
제 2 독서	정스텔라(애리)	서테레사(춘애)	-		김테레사(승희)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구분	주님공헌대축일(1월 5일)		주님세례축일(1월 12일)		연중 제2주일(1월 19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이바오로(명국)	권미카엘(창모)	임루카(승원)	이엘리사벳(자영)	정스텔라(애리)	전베로니카(진영)
제 1 독서	강요한(신호)	이베드로(기만)	최분도(환준)	심미카엘(태규)	김안드레아(찬곤)	정요한(석준)
제 2 독서	김안젤라(영선)	이골롬바(정연)	최분다(수영)	심헬레나(승화)	김글라라(순희)	손리디아(정욱)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강론

여러분 가정은 편안들 하십니까?

얼마 전 한 대학생이 쓴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사회의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안부를 묻는 인사로 시작한 대자보인데, 각자들 안녕치 못한 이유를 찾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심지어 중고등학생들까지도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 열풍에 휩싸였다고 하더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은 편안들 하십니까?” 라는 인사로 오늘 강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곁에서 보기에 모든 가정들은 별 큰 문제없이 무난한 것 같지만 사실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들 저 집은 아무 걱정 없는 가정일거라 간주할지라도 아마 한두 가지 골치 아픈 문제쯤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 갑자기 실직을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자녀가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온갖 말썽을 일으켜서 머리가 아픈 가정, 집안에 중환자가 있거나 우환이 있어서 분위기가 어두운 가정, 이 밖에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근심걱정과 문제들이 지금 우리들의 가정에 현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닌가요?

예수 성탄 대축일을 지낸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인 오늘, 교회는 모든 가정의 모범인 성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마리아, 요셉이 이루셨던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부르며, 모든 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가장 이상적인 가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가정을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성가정은 아무런 문제없는 완벽한 가정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 쉽지만 실제로 성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가정이야말로 인간적 고뇌와 어려움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상적인 가족 구성원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양부였으며, 어머니는 마리아는 결혼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잉태하셨고,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았다고는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에는,

부모님을 깜짝 놀라게 했으며, 걱정도 끼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불효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실 성가정은 고통이나 시련이 없는 가정이 아니라, 시련과 고통을 잘 이겨 낸 가정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성가정은 오직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가정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우리들 가정은 여전히 많은 근심과 걱정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성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일체 돈 걱정이 없어야, 자녀들이 속을 썩이지 말아야, 아니 근심과 걱정, 고통이 없어야 행복한 가정, 성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가정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가정을 이룩합시다. 아멘.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생명의 말씀

내면 깊은 목소리

요셉 성인은 자기 삶의 중요한 고비마다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일러주는 대로 좇아갑니다. 성모님을 아내로 맞아들일 때도, 오늘 복음처럼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갈 때도, 또 피난 갔다 나자렛에 돌아와 정착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는 요셉 성인의 성령체험을 가리키는 것으로써 존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집트로 야반도주를 하기 전에 헤로데로부터의 위험 사인들이 감지되고, 요셉 성인 나름대로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삶의 정황 가운데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종종 보니까 말입니다.

물론 요셉 성인처럼 성령의 가리킴과 이끄심을 순순히 좇아간다 해서 현실적인 구체적 삶 속에서 온갖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겪어야 할 어려움은 그대로 다 겪어내야 할지 모릅니다. 다만, 적어도 성령을 따름에서 오는 깊은 내적 평화와 위로가 함께할 것이고, 그를 통해 현실적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었으면 하는 것은 성가정의 이집트 피난 생활이 그저 속히 지나가야만 할, 가능한 빨리 빠져나와야만 할, 그런 통과역이고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갖가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지만 이집트 피난 생활 그 자체가 중요한 목적인만큼 그 상황 속에 깊이 머물며 음미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의미와 가치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필경 요셉 성인과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은 그리 하셨을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며 겪어 내야 하는 갖가지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도 이런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 성인이 겪은 이런 깊은 영적 체험들이 우리 삶 안에서도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향해 온전히 열리고 귀 기울이는 마음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적은 내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됩니다.

그저 하느님 마음대로 우리 삶속에 개입해 들어와 간섭하시면서 기적을 만드시기도 하고, 내팽개쳐 두기도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희망 속에서 이런 마음 자세가 깊게 형성될 때, 평화 중에 어떤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적대자와 심지어 원수까지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까지 만들어집니다.

끝으로, 오늘 복음을 통해 가장으로서의 요셉 성인의 모습

을 깊게 음미함이 유익하겠습니다. 한집안에서 가정의 위상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알아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그마한 학교도, 기업도, 나아가 국가도,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책임자의 몫이 얼마나 크지, 그 지도자의 모습 여하에 따라 조직과 구성원 전체가 얼마나 다른 양상을 띠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난한 현실 가운데 가정에, 학교에, 기업에, 국가에,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유시찬 보나벤투라 신부
예수회



제 마음이 이토록 날이 선 이유는
당신 사랑의 옷을 입지 않아서입니다.

이 겨울 제가 어느 곳에 머물러도 편치 않는 것도
당신이 온전히 제 집이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글_정지원 루치아,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믿을만한 사람

우리는 신뢰할만한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 친구 믿을만합니다. 그 친구 누나가 우리 사촌 형과 결혼했어요.”, “그 친구 믿으셔도 됩니다. 저랑 고등학교 3년을 같이 다녔거든요.”, “그 친구 믿을만합니다. 저랑 같은 교회 신자거든요.”

이렇게 혈연, 학연, 지연으로 대변되는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대체로 미더워하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심지어 리더십의 자리에 오르면, 제가 들어야 할 이야기보다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믿을만하다고 여기는 일도 빈번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제 점차 그러한 ‘관계중심의 사회’에서 ‘원칙중심의 사회’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정작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실수를 인정하면 그 이후에 돌아오는 불이익을 막으려는 생각에서 대부분 숨기려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혼자만이 알고 넘어가는 실수란 많지 않습니다.

결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그 실수는 다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숨길수록 신뢰만 잃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아닌 조직이나 회사, 공동체의 경우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는 집단이 되려면,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을 모아들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조직 내 구성원이 실수를 인정할 수 있게 너그러운 룰을 적용하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신뢰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성원은 점차 실수에 대해 인정하는 여유가 생기고, 약속은 지킬 수 있게 되니 믿을만한 사람들로 변해 갑니다.

아무리 품성 좋은 사람들을 모아 놓아도 실수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하고, 약속을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지킬 수 없게 만드는 일이 빈번하다면, 품성 좋은 사람들조차도 점차 서로를 의심하고 믿지 않게 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싶습니다. 고백성사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느님은 그것을 다 들어주시니, 이보다 더 실수를 인정하기 쉬운 일이 없습니다.

또한 고백성사는 또 다른 신앙적 성장을 위한 약속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은 그 모두를 인자하게 들어주시고 약속을 지키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룰 자체가 정말 선진화된 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백소에 들어서서 “휴, 사는 게 그냥 죄지요!” 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우스갯소리들을 합니다.

이건 실수의 인정이 아니고, 자신의 실수를 하느님이 주신 생명에 전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고백은 늘 하지만 같은 죄를 계속 지으며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실수를 인정하지만 노력을 안 하는 것이니, 결국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느님은 이런 우리를 다 믿어 주십니다. 실수를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를 믿을만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는, 정말 선진화된 룰을 가지신 분입니다.

박용만 실바노
(주)두산 회장

머무름

굽어보소서, 성모님.

태어나지 못한 수많은 아기들을 굽어보소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을 굽어보소서.

무자비한 폭력의 제물이 되고 있는
남녀들을 굽어보소서.

무관심이나 그릇된 자비로 죽임을 당하는
노인과 병자들을 굽어보소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105항

가톨릭전례

“유아 세례를 꼭 받아야 하나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새롭게 탄생한 생명은 부부에게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에 아버지, 어머니라는 새로운 이름을 더하여 줍니다.

모든 부모는 언제나 내 아이가 세상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까요?

전통적으로 한 사람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완전한 교육으로 지(智), 덕(德), 체(體)를 이야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땀 흘리며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가고, 교실에서는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지혜를 넓혀갑니다.

하지만 인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윤리와 도덕 교육은 운동장과 교실에서의 가르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덕은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고 신앙의 중심에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신앙의 성사입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253항)

세례자가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유아임에도 불구하고, 유아세례를 신앙의 성사라고 하는 이유는 세례를 청하는 부모의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유아는 가족 안에서 보살펴지고 성장하듯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뿌리내리고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꿰뚫어 보는 지혜를 배우는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유아세례는 부모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일부 부모는 신앙 교육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자유로운’ 교육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신앙은 중요하지 않다’ 라는 부모의 신념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학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입학 여부의 동의를 아이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이의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삶과 죽음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하는 신앙으로 인도하는 유아 세례를 강제적이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신자인 부모 자신이 그리스도신앙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진리라고 확신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신앙을 정말 고귀하고 소중하다고 여긴다면, 사랑하는 자식에게 가능한 일찍 전해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출생 후 가까운 시일에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면 교회와 부모는 그 아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무한한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250항)

유아 세례는 어린이 자신의 신앙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은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는 부모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가족의 믿음은 자녀가 신앙의 씨앗을 받아서키는 기름진 토양이 됩니다.

부모는 유아에게 깊은 의미와 가치를 지닌 이름을 아이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지어줍니다. 이름은 아이와 하나가 되고 평생 동안 함께 성장합니다. 결국, 이름은 아이가 자신의 뿌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고, 삶의 시발점을 찾아가는 이정표가 됩니다.

유아 세례는 아이의 자유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는 사랑과 진리이신 하느님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훗날 아이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 달려갈 수 있도록 부모가 해주어야 하는 의무입니다.

유아 세례는 자녀 교육에 가장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사도 10,48)

※ 참고: 「가톨릭교회교리서」 1213-1274항

서울 대교구 사목국 연구실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79	243	-	322
헌 금	\$610	\$1,424	-	\$2,034

< 교무금 > \$6,105

양주석(7-12) 정일양(12) 최환준(9-12) 염명련(12)
 심연자(10-12) 김세록(9-12) 정경희(11-12)
 노용례(1-12) 최윤기(12) 정창희(12) 김영자(12)
 박영자(1-12) 송인근(9-12) 정애리(12) 조진행(1/14)
 한재구(10-12) 강신호(11-12) 김정탁(10-12)
 박일신(12) 김명환(11) 장진혁(9-12) 채성일(10-12)
 최응일(11-12) 김유한(11-12) 추현홍(10-12)
 송인환(12, 1/14)

< 성소후원금 > \$50

최윤기(12) 정창희(12) 박일신(12)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서춘애 \$200 심연자 \$100

< 지붕공사 & 소방설비 공사 헌금>

* 목표액 \$48,000
 * 총 약정 \$55,550
 * 총 납입 \$54,950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 약정액 \$311,515.28(186 세대 약정)
 * 봉헌액 \$292,945.28
 * 지난주 봉헌 : 익명 \$600

날짜	지향	봉헌자
12월29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박마리아(희원)	가족
	연 양로사(종순)	염파트리샤
	연 권베드로(태문)	권바실리오
	연 조바오로(병철)	조바실리오
	연 김형태	김엘리사벳
	연 박토마(정영)	김다윗(승우)
	생 김바오로(아룡)	이골롬바
	생 채루카/세레나	이골롬바
	생 대녀들 가정	김벨라뎃다(숙자)
	생 김베드로(현수)/안나	이골롬바
	생 이바오로(동춘)	토요성경묵상회
	생 감사의 한 해	이아나스타샤가족
	생 최요셉(순일)	정스텔라
	생 김마리아(옥준)	정스텔라
12월31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1월 1일 수	연 최유리자	가족
	생 본당신부님	임루시아
1월 2일 목	생 본당신부님	익명
	생 김케네스(관웅)가정	김엘리사벳
	생 대자대녀가정	김엘리사벳
	생 이정우	전수산나
1월 3일 금	생 채토마스/줄리	채헬렌

~~~~ 오늘의 간식은 조분다/차리디아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지 사 양 -



2013년 한 해 동안  
본당의 공동체를 위해  
열심히 봉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전례 안내

- 12월 31일(화) 저녁 8시 송년 감사 미사
- 1월 1일(수) 오전 11시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미사  
- 의무축일\*
- \*1일 수요일 아침미사는 없습니다.
- 1월 2일(목) 성시간
- 1월 4일(토) 성모신심미사(꾸리아월례회)

◆ 지속적인 성체조배 안내

- 1월 3일(금) 저녁 9시부터 1월 4일(토) 아침 7시까지

◆ 2014년도 교무금을 약정하시어 친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박스에 넣어 주십시오.

◆ 사목위원/단체장/구역장 연말 모임(신임위원 포함)

- 오늘 미사 후 친교실
- \* 선종봉사회에서 점심을 제공해 주십니다.

◆ 교육관 도서실 책이 대출기간이 지나도 반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납하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도서실로 반납하여 주십시오.

◆ 예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들은 내년 예산  
작성을 위해 총무에게 신속히 제출하여 주십시오.

◆ 각 단체장들께서는 2013년 회계장부를 재정위원회에  
오늘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 소방시설 및 지붕누수 공사 결산

- 총수입 : \$54,950
- 총지출 : \$41,314.92
  - 지붕공사 \$1,111.92
  - 소방시설 \$40,203.00
- \* 잔액 \$13,635.08 은 앞으로 있을 성당보수 공사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 독감예방 접종

- 1월 5일(다음주일) 아침미사/교중미사 후 친교실
- 문의 :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

◆ 탁구동호회 주최 탁구대회

- 1월 5일(다음주일) 교중미사 후 친교실

◆ 북가주 제 25차 ME 첫주말 공지

- 일정 : 2014년 1월 24일 - 1월 26일까지(2박 3일)
- 장소 : Hilton Garden Inn, Hayward CA
- 문의 : 한요셉 415-810-3175/한헬레나 925-285-2038

◆ 서중부 남성 제 11차 영어권 꾸르실료 봉사자 모집

- 일시 : 2014년 6월 26일 ~ 29일
- 장소 : Holy Redeemer Center, Oakland
- \* 북가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영어권 꾸르실료  
입니다. 남성 꾸르실리스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 문의 : 이창용 레이몬드 510-688-0157

◆ 2014년도 간식(떡) 신청

- 한 가정이 하면 \$300, 두 가정이 같이 하면 \$150씩
- 신청 : 성모회장 510-914-0709
- \* 2013년도에 간식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 과달루페 성모성지 순례/복음선교 연수회원 모집

- 일정 : 2014년 2월 3일 ~ 2월 7일(4박 5일)
- 회비 : \$600(항공료 별도)
- 문의 : 이은경 줄리아 253-223-8775

주일학교 소식

- 2014년 1월 19일 : 개학(방학동안 영어미사 없습니다.)

안국학교 소식

- 12월 14일 ~ 12월 28일 : 겨울 방학
- 2014년 1월 4일 : 개학